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보고 듣고 말하고 오고감 고정됨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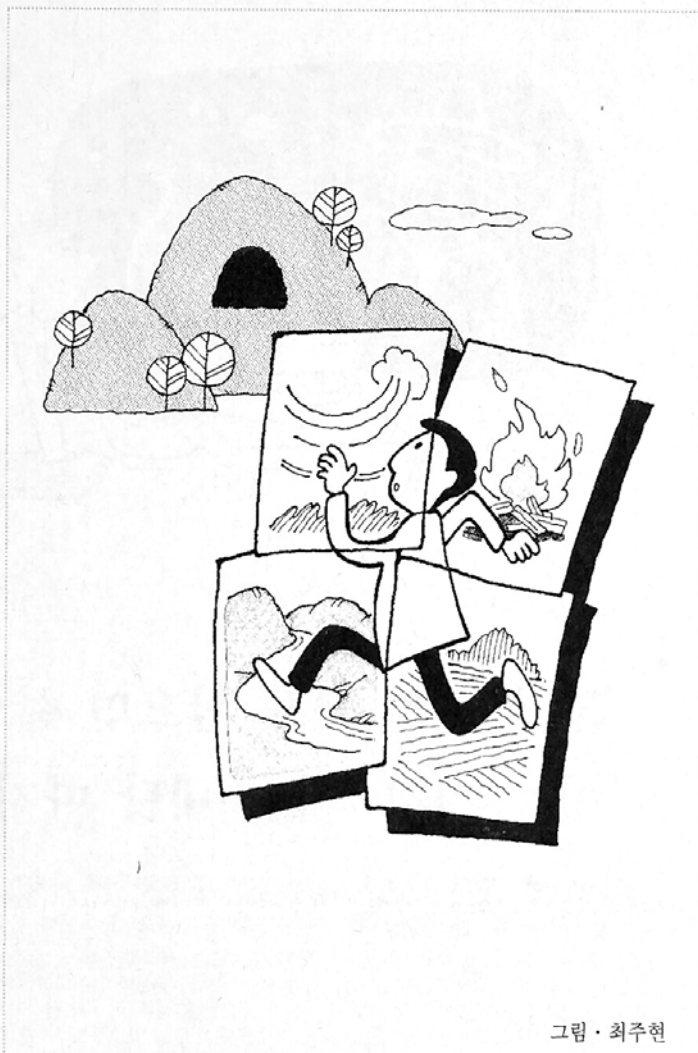
## 17면에서 계속

잘못된 걸 딱 따져서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천당으로 보낸다, 이런다면 부처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도 본래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이 빠리다 하더라도 일깨워서 사람 되라고 해 줘야지 그 말과 뜻이 어긋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건지는 것이 고 저래도 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에 뱀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든가,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었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죽을 때 보면 뱀이 죽을 때처럼 몸이 꼬이면서 죽는가 하면 그 뱀에 자기 모습을 수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을 언제나 벗겼습니까. 생략해서 뱀으로만 얘길 했

다 돌 아나게 자꾸자꾸 자기를 거쳐서 공부를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화평해지고 돈도 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니 사는 것이 좀 나아지죠. 그렇게 모두가 슬기롭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지낼 때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는 원인이 영령들이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에 일을 나갔다 하더라도 떡을 주문해 왔다가 퇴근하고 오면서 찾아와서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구들끼리 음식하는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누가 많이 했는지 안했는지, 또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하면서 재를 지내기도 전에 이미 형제들의 의리가 다 상해있습니다. 재란 게 뭐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기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의 절 올리고 그



그림·최주현

### “집착이 있기때문에 썩가 생기죠 그 집착을 주인공자리에 놓게되면 고가 멀하고 바로 도가 됩니다”

는데 전후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살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살생하지 말라, 깨우친 사람은 살생을 해도 살생이 아니고 건지는 거다, 만약에 깨우친 사람이 소를 건질 때에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그것을 안 먹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한 점 먹어 안 먹었습니까? 만약에 소가 환토가 된다면 그건 의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를 지내고 천도시키고 하는 데에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한 번 해서 뱀의 허물을 벗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든 지 자식이든 많이 들고 나서서 공부를 해야만 차츰차츰 벗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도 견져서 단박에 건져질 수가 있지만 그 견져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견져주기만 하면 될 겁니까? 뱀의 습이 있어서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걸요. 그러니까 뱀의 습을 벗겨 주기 위해서 차츰 차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닭이나 토끼나 뭐라도 안 죽이면 안 될 때 그때는 주인공에 다 맡기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죽인 사람이 아니고 안에서 죽인 사람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없다’는 뜻을 아십니까? (반아심경)에도 있듯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것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했다고 하죠. 우주 삼체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나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윽고 빠지고 빠지고 무조건 질문하고 이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내 뜻이니 네 뜻이니 하는 것은 아예 공부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없는 겁을 거치면서 우리가 형성되고 진화하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진화를 해내려 왔는데, 약이 있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내가 나를 배척하는 게 됩니다. 돌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잘못 하면 내가 그렇게 받는다’, 또는 ‘남을 죽이면 내가 죽임을 받는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돌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 남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아끼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그 모두를 다 돌 아나게 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환이며 싸움이 생기질 않고 화목과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 언쟁이 일어난다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마음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살아나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렇 때는 조상들도

감사한 마음이 산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재는 식구들이 ‘오늘이 기일이야’ 하고서 정성스레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구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다룬다면 그걸 쳐다보는 조상님들 마음이 어디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전체가 먹는 떡이니 향과 초를 켜고 또 등그런 떡은 식구가 많으면 세겨를 놓고 나눠먹고 또 식구가 적으면 하나만 놓고 지내도 돼요. 하나가 삼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도 될 수 있고, 또 백 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이치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치악산에 있을 때 아랫마을에 잠시 불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이년아! 내가 재산에 미쳐서 아무개도 죽이고 아무개도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딱 하나 놓고 재 지내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령은 재가 없기 때문에, 돌에 빠질까봐 불에 타 죽을까봐 짐은 다 날라가고 온 식구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한몸 가운데 그 깊고 깊은 내 마음속에서 관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시라고 그

정도 분수에 맞게 얻을 것이지 등을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맞춰보지도 않고 덜컥 결정해 버리거나 혹은 보증을 잘못 서서 짐은 다 날라가고 온 식구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한몸 가운데 그 깊고 깊은 내 마음속에서 관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시라고 그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정수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겹쳐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니까 과거를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죠. 과거가 현실이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요. 이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리입니다. 알고 보면 쉽고 모르고 보면 아주 복잡하고 그렇죠.

옛날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상원사 토굴에 있을 때 어느날 마을에 내려왔는데 어느 집에서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내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뛰 어다니면서 막 부수고 소리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알아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장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제 그만 해야겠다.’ 하고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날부터 관할더라고요.

또 한편은 상원사 토굴에 올라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막 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손이 전부 문둥이처럼 문드러져서 시집도 못 가고 목지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걸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스님이 꼭 보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정말 진심으로 불쌍했어요. 그래서야 길을 비켜줬는데 알았다는 소리가 났을 줄 알고 그렇게 빨리 비켜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토굴에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 사람이 모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일을 벌여놓은 것을, 그 집착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 이렇게 살면서도 고생, 죽어서도 고생, 죽어서도 내가 체가 없는 줄 모르니 또 걸리죠. 몽둥이로 때리거나 칠되로 때리거나 가름 가리에 넣거나 이래도 그것이 우리가 체가 없는 줄 안다면 그냥 벗어날 수 있을텐데 생시에 맞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껴거든요. 이 모두가 한 생각에 달린 겁니다. 그 일이 있었고 한참 지나서 토굴에서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차를 막아놓고 아무 소리 없이 절을 세 번 하더니, ‘나부부에게 다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낫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낫게 했습니까? 내가 없다면 그 사람도 없고 그 사람

뭘가 있으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심재 팔난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입력이 돼서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입력한 대로만 나오지 딱 말 나오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팔자 운명도 붙지 않고 삼재도 붙지 않고 어디 산 길을 걸어가도 나무들, 돌들, 흙들도 전부 자기 편이예요. 그래서 더디 가든지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팔자 운명이나 삼재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풀라가 이렇게 행하는 거지, 안다면 팔자 운명이라고 할 것이지 마세요.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살기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되니까요.

아까 뱀 얘기를 했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받은 고양이로 받은 사람으로 낳아 땅에다 묻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금반지를 잃어버리고 선 고양이를 시루에다 찌서 그걸 튀어가는 대로 그 사람이 고양이처럼 몸이 비틀린다고 해서 고양이를 시루에다 찌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뜨거워서 몸이 비비 꼬이니 그 집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러나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죠. 자기 조상들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살리고 3대를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6대 7대까지 12대 종손까지 다 건지게 되면 그때는 확 터져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 산소도 생활에 영향주는지

문 제게는 결혼한 형님이 허분 계신데 생활이 편치 않습니. 어떤 분은 할아버지 산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산소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답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산소를 잘못 썼다 이라는 것도 영혼만 건져내면 되죠. 몸은 아무 상관 없이요. 그러나 그 산소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얇게 이끌어가는 것도 주인공이고 나를 지켜주는 것도 주인공 너야.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너니까 주인공 너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걸 증명해 봐.’ 이렇게만 관한다면 문제가 다 없어져요. 집에 가서서 형님한테도 관하는 거 알려주시고 본인도 열심히 관하고 공부하세요.

### 도모르면 결혼 삼가야 되나

문 언젠가 청년회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스님 법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리를 잃기 전에는 시집 장가를 가지 말고 시집 장가를 갖거든 아이를 낳지 말고, 아이를 낳았거든 아이에 매이지 말라.’ 저는 이 중에서도 하고 싶지만 장기도 가야 되겠기에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 허허허. 내가 언제 장가 가지 말랬나? 그걸 뜻으로 들으셔야지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자기 마음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혼하지 말라 하는 뜻은 이 도리를 알아야 자식을 낳더라도 좀 차원이 높은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부부기간이나 부모자식기간에도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겪는 일도 다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고 그런 걸 보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벌여놓은 일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내 탓이로구나! 주인공, 이렇게 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한다면 양쪽에 붙어 다 들어오면서 순간 그게 다 없어지죠. 이 도리를 조금이라도 알아서 반야줄을 쥐고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다면 양쪽의 조상님들이 다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하는 도리를 알고서 자식을 낳으면 좋은 영이 들어올거고요.

부부기간도 서로 깨닫고 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동반자가 없지않고 서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단지 고깃덩어리끼리 모여 사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시집 장가는 것도 공부하는 도반을 얻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며 사세요.

## “모르면 삼재팔난, 알면 팔자운명도 이름” “남의 생명도 내생명 남의 모습도 내모습”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랬기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 혼이 세 개나 한꺼번에 들어요.

이 얘길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것도 바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집사를 가지고도 바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요만한 그릇에다가 훑 한 송이 놓아 놓으셨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담아놓고 가만히 앉았다가 ‘여길 봐라, 여기로 가면 너무나 좋으니 들어가봐라.’ 하고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리송하니까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오리조리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바다가 되고 연꽃이 피고 돌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보이는지 그만 셋이 다 거길 들어갔어요. 승천한 거죠. 들어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얘깁니다. 거기서도 모두 한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부터 그 젊은 여자는 성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무위법이라는 것, 유위법이나 무위법이나 둘 아닌 도리가 이렇게 광대무변하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난 못한다’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려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도를 할 수 있는데, 왜 두 가지로 말하느냐 하겠지요. 그게 바로 방편이다 이겁니다. 제삼자를 위한 방편 말이에요.

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고(苦)가 생기는 데 그 집착을 그 주인공자리에 놓게 되면 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도가 되는 것이고요. 다가오는 경계, 죽고 물 도에 이를 수 있는 재료로 삼는다면 사는 것이 덜 힘들겠죠.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어요. 몸이 조금 아파도 의욕이 없고 심이 살고 싶지 않을때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한 점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를 알아야. 그러니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공했다는 겁니다. 양면을 다 놓고 보면 공했으니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공식으로써 집어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살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도리를 모르니까 고통스럽게 살고 있죠. 문제가 생기고 고가 생기고 자기가 다 벌여놓고 죽네 사네 하거든요. 다 자기가 지어놓고선 누구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과거로부터 내가 그렇게 쌓아올리고 차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얼른 새로운 걸 입력시키지는 않고 언제까지 남의 탓 하며 사십니까.

어떤 장사를 시작한다 해도 용도에 따라 자리를 보고 물건을 보고 돈도 어느

정도 분수에 맞게 얻을 것이지 등을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맞춰보지도 않고 덜컥 결정해 버리거나 혹은 보증을 잘못 서서 짐은 다 날라가고 온 식구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한몸 가운데 그 깊고 깊은 내 마음속에서 관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시라고 그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바탕은 지수화풍(地水火風) 때문이죠. 땅과 물이 불어 뭉쳐지면 그 안에서 온기가 생겨 따듯해지니까 생명체들이 생겼습니다. 지수화풍에서 형성돼서 지금도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있고, 또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게 되니 결국 지수화풍에서 벗어나 수가 없죠. 지수화풍이 원래의 고향이니까요.

영령들도 여기 다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훑아서 말입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이 본다면 기가 막히고 아프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니까 초와 향, 그리고 떡, 과일 꽃을 놓고 삼연에는 또 물 한 그릇을 큰 데다가 떠봐라 하는 것은 그 물이 바로 바다가 되기

이 없다면 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이 아닌 까닭에 여기에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게 거처서 나가니까 나간 사이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시집을 갈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집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 걸 교재로 삼아서 내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 마음으로 세배 드렸는데...

문 큰스님, 설 쇠고 큰스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었는데 그런 직접 뵙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세배를 드렸습니. 세배는 잘 받으셨는지요?

답 하면서도 힘이 없이 했기 때문에 나도 힘이 없이 받았소, 허허허.

### 삼재가 정말 있습니까

문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정초가 되면 삼재나 뭐니 그런 말이 많습니. 과연 삼재라는 게 뭔지 알고 그런 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삼재라는 것, 팔자 운명이라는 것, 또는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또 세균성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데 ‘삼재가 없었나?’ 과거·미래·현재가 틀어 아는데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이 아니고 안과 밖을 다 조복했는데